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기록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모스 8 : 1 - 14)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은 7장에 나온 세 가지 환상에 이어 광주리에 담긴 여름 실과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1. 이스라엘의 끝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2절),

광주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여름 실과는 잘 익은 과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리에 가득 담긴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무르익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추수기에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또한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수하며 오히려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스’라고 읽으며 끝이 가까웠다는 말을 ‘케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무엇을 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과일을 보았다고 했고 하나님은 끝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환상은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과 같이 끝이 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4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며 아마샤와 여로보암,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공평과 공의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시장의 상행위를 불공평하게 했고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 약자에게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예비를 작게 하고 세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5절).

월삭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 너무 길어서 언제 장사를 하겠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니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밭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기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재는 예비를 속여서 돈을 호되게 받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6절).

그들은 또한 임금을 아주 적게 주면서 약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이러한 불의를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2. 죽음의 심판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9절).

대낮에 해가 저서 캄캄하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곤고함이 오고 기뻐야 할 절기들이 오히려 애통하며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10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의 기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근은 곡식이 추수가 안 되어 가난해지는 것이고, 기갈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눈은 보아도 죽는 것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전2:10).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 이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으나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은 앞 다투어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기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의 죄 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14절).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다시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공의와 공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 풀 꺾이고 이제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처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듯 서울교회도 불같은 시험의 시간을 뒤로하고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께 당회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서울교회는 그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박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련도 넘어서 이길 것이며 오늘의 이 시간은 후대에 쓰여 질 서울교회 역사의 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안식년제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재신임의 절차를 통하여 더욱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자 함이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지로 2000년 10월 공동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온 자랑스러운 제도인데, 이제 와서 한 사람의 유불리에 따라 안식년제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가 폄하되고 부정되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며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저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아가페타운은 서울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과 은퇴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건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매입한 것

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매입 당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것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무엇보다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에 적합한 땅이었는데, 매입 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며 나라와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도 최선을 다해 이 아픔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올림

2017 성경암송대회

성경암송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김진달 집사 (7교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규례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암송 함으로 내 속에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로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암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달콤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다음세

대들이 성경 암송대회에 많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사랑을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는 베드로전서가 암송대회의 범위입니다. 저는 출퇴근 하는 시간을 주로 성경 암송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암송하다 보니 베드로전서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말씀을 통한 성숙,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직분자들의 삶, 영적 싸움 등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극히 어려운 이때에 베드로 전서를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 어느 때는 남모르게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아직 두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베드로전서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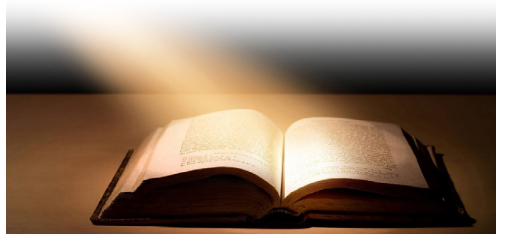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현재 3장 22절까지 설교하였다.



박정환 (청년 2부)

청년1부로 처음 이곳 서울교회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 2부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교회를 다녔고 남들보다 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서울교회 하계수련회에 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임원으로서 서울교회의 청년부 일원으로서 최대한 중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고 스스로 물을때마다 돌아오는건 공허함과 세상적인 얘기들뿐이었습니다.

이번 하계수련회는 이전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로 진행되었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중심을 지킬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함께 맛있는 고기도 굽고, 즐거운 레크레이션까지. 하지만 강지훈 목사님의 특강 말씀 중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왜? 라고 묻고 또 물었는가?"라는 말씀에 저는 땀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저 이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기만 했을 뿐, 주님께 진실로 여쭙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정부려도 하나님은 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인자한 하나

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14일 청년1, 2부의 찬양이 아가페타운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이시간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비록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찬양이 오늘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연합된 목소리로 다시 서울교회에 울려 퍼지길, 서울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청년 1,2부가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동행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주님 손에 쓰임 받는 에바다부가 되기 위해



조미영 권사
(에바다부부름)

서울교회의 대치동 이전 후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서울교회 에바다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농인목사님도 부임하시고 10년이 훨씬 넘게 한 계단씩 나아가던 에바다부가 올해 암초를 만나 농인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현재는 청각장애청년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지도목사에 의해 뿌리째 뽑혀 나가 옮겨져 버린 그들을 안타까워하던 저희들에게 두 분이 돌아와 주셨고 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그 분들과 김진달 부장님이하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서울교회 에바다부가 미약하지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층 식당에서, 로비에서, 예배당에서 어깨 두드려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에바다부는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화요일(15일) 비록 담당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서준권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배와 기도회로 일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가평에는 호우주의 문자까지 오는 상황이었지만 저희와 서울교회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가페 타운은 정리된 잔디와 내리는 비로 인해 더 아름다웠습니다. 장애인 선교라는 서울교회의 비전이 펼쳐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장소로 조금도 부족

함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믿음과 행위,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받고 진실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기도로 저희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힘들어도 주님 손에 쓰임 받는 에바다부가 되기 위해 저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주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모양으로 불철 주야 힘쓰고 노력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모습에 이 땅의 저희들도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사역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 지난 5월에 한국 성결교 교단 파송 선교사 9가정이 추방되고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방글라데시장로교회(BPC) 산하에 있는 교회 개척 사역 및 이슬람 개종자 사역, 학교 사역 그리고 이들을 돕고 있는 엔지오(호프방글라데시)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방글라데시장로교회(BPC)에 속해 있는 13개 교회 20명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 제자들 양육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과 극렬 이슬람 세력으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초등학교 과정 7개, 중고등학교과정 5개, 방과

후 학교 5개, 기숙사 2개에서 공부하고 있는 1,800여명의 학생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80여명의 교직원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며 이 교육기관이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위한 귀한그리스도의 일꾼을 길러내어 예수의 정신과 사랑으로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지난 5월 말에는 교단파송 선교사 수련회가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자매노회인서울 서남노회 고척교회 후원으로 정말 유익하고 힘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거의 4년 만에 온가족이 만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 부부가 더욱더 깨어 있어 기도하며 늘 성령과 동행하며 이 백성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 더위에 지치지 않고, 약한 세력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 한국에 있는 딸 예은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교육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 하경이가 KLM(네덜란드) 항공 인턴쉽 과정을 가집

니다. 안전과 건강 그리고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방글라데시 이경업 선교사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21일(월) ㈜미래한국 미디어 제11기 편집위원회 첫모임에 참석한다.
- 특남: 3교구 김동준 성도 이신혜 성도 (이강진 장로 송미령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 김광민 집사 박민숙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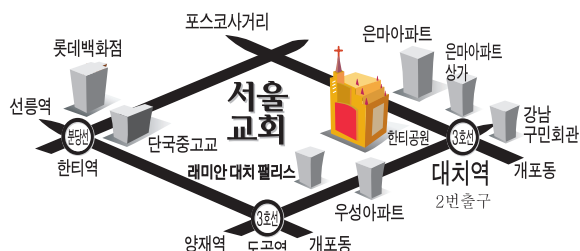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온전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2.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질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